

호주에서 본 한국 여기 세계화와 한국화의 길아...

安 奉 奎 (한양공고 교사)



▲시드니항구의 유람선에서 포즈를 취한 필자.

이 글은
교육부가 주관한
전국 공고교사 해외공업현장
연수단의 일원으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5일까지
호주지역연수에 참가한
한양공고교사 안봉규박사의
연수기이다.
(편집자)

지구의 반대쪽에 외
따로 떨어져 있는 대륙
인 호주에서 한국을 돌
이켜봤을 때, 자유롭지
못하고 쓸데없이 바쁘
기만 하는 우리의 답답
한 모습부터 떠오르고
있었다. 그곳에 펼쳐져
있는 시원스런 환경 속
에서 즐거워지기보다
먼저 가슴앓이부터 하

고 있는 비틀어진 내 모습을 내내 의
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와같이
응졸한 나 자신부터 탈바꿈하는 것이
세계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였다.

서로 배타적인 세계화와 한국화란
개념보다 '한국의 세계화' 또는 '세계
의 한국화'처럼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쪽이 나에게서는 실제적인 느낌을 준다.
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둘은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감히 제안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무한경쟁
의 시장개방이든, 영어 조기교육이든,
또는 대중매체 및 문화의 개방이든 간
에 이 두 축이 만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가 있
는데, 이것은 우리의 자세가 모든 인
류에 대하여 편견없이 바르고, 우리의
마음이 세계로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수직적 인간관계

우리가 시드니에 도착(94. 11. 13)
했던 그 주말에 마침 우리 대통령께서
시드니-캔버라 일정의 호주방문이 있
었다. 그때 우리 숙소가 있었던 옥스
포드거리의 시내 중심부인 하이드공
원에서 유명한 환락가인 킹스크로스
까지 이어주기 때문에 주야로 번잡한
곳이었다. 왕복 4차선인 이 도로의 중
양분리지대에 설치된 지주대에는 단
순하게 르노와르(Renoir)라고 서명체
로 박아놓은 빨간 깃발과 노란 깃발이
나란히 펄럭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프
랑스의 인상파 화가였던 르노와르 특
별전의 광고임이 틀림없었는데, 한국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는 선전물은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길거리의
이런 분위기는 대통령이 도착하던 날
도 역시 그대로였다. 태극기 한 장 구
경할 수 없었고, TV뉴스까지 방송채
널마다 그 시간만큼은 전혀 한국에 관
한 어떤 화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런데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해서
는 이례적으로 매스컴에서 며칠씩이
나 크게 보도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이 귀국하던 날, 환송탑이나 태극기의

물결 정도를 기대하면서 호주 수도인 캔버라에 관광차 갔었는데, 그곳 역시 썰렁하기는 시드니와 마찬가지로였다.

우리로서는 한국 대통령에 대한 호주의 태도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호주가, 쉽게 말해서, 우리 대통령의 방호(訪濠)를 별 볼일 없는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한국식 판단이 강하게 집약된 것이었다. 우리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당한 수모는 곧 한국인 모두가 백인들에게 무시당한 듯한 그런 군중심리로 마음에 와 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와같은 접근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다, 넉넉하지 못하고 독선적인 사고방식이 오해를 덧붙여 증폭시켰던 것으로 보였다. 사실은 호주 정부나 매스컴에서 우리 정부를 얕잡아 본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들에게 수출실적이 미, 일 다음의 제3위국인 우리 한국 역시 깔보일 만한 상대도 아닌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수직적 상하관계의 틀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굴절된 모습을 깨우치게 하는 좋은 보기도, 기회였다.

호주 안에서 '한 눈에 한국인을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쉽게 구별하는 요령으로 그 눈매를 보면 안다'고 한 관광 안내자가 이야기하였다. 한 마디로, 눈매가 날카로우면 바로 우리란다. '줄을 잘 서야 출세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특히 눈치가 빨라야 잘 산다는 체면을 어릴 때부터 익히면서 자라왔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민주주의 제도의 바탕이 되는 원만한 수평적 인간관계 보다 독재의 골격을 이루는 수직적 상하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잡는 처세술을 더욱

부추기고, 우리는 여기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남에게 아쉬워할 것 없고 스스로 즐기는 생활방식에 빠져있는 호주는, 좋게 말해서, 한국 보다 앞서가는 탈정치사회로 들어섰다고 요약할 수 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이란 뜻을 가진 원주민 말에서 따온 캔버라 시가의 전후좌우 중심축 건물은 국회 의사당이었다. 이 구조물은 입구 마당에서 옥상까지 잔디 비탈길로 이어져 있어서, 누구나 그대로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 발아래 국회가 있고, 집권당 당수인 수상은 첫째 가는 국민의 머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 했다. 이상을 호주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무지 한국이 어디고, 대통령이 누구고 무엇인지조차 모른다해서 저들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불편도 없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몇몇 관계자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아마 그 책임자들 만큼은 각자 맡은 일에 철저했겠지만...

코알라와 호주주민들

호주 땅은 생태학적으로 오랫동안 고립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타 대륙에서 보기 힘든 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는 반면 맹수류가 전혀 없는 것도 특이했다. 그래서 '나도 모른다'라는 뜻인 캥거루와 같은 순박한 유대류 동물들이 달리 천적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 중에 '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코알라는 나뭇가지를 꼭 잡은 상태에서 진종일 낮잠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한가로움은 흡사 호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알코올성

분이 있다는 속칭 껌잎(gum leaf)나무의 잎사귀만을 뜯어먹고 사는데, 그것으로 아무 불편없이 자기 생활을 해결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오래 전부터 애버리진이라 불리는 원주민이 주인의식이란 개념조차 필요없이 수렵과 채취로 살아가고 있었다. 불과 2백여년 전에 시드니 쪽으로 첫발을 내딛었던 쿡(Cook, J.) 선장 이후, 대영제국은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없이 '여왕의 땅'이라고 선언만 함으로써, 당시 30여만명 가량의 원주민까지 코알라처럼 손아귀에 넣어버렸다. 여기에 대한 강자의 논리는 쉽고 간단했다. 즉, 애버리진들은 자신을 땅에 종속된 구성물 중의 일부일 뿐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오늘날까지 이 주장을 계승한 백인들의 후예들에 의하여 호주는 지금의 모습으로 개발되었다.

시드니는 전반적으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호주에서도 특히 황홀하고 멋진 곳이었다. 하얀 소라껍질 같은 오페라하우스와 바다를 가로지르는 현수교인 하버브리지의 미려한 자태는 그만 두고라도, 고운 잔디밭이 주변 도로에까지 툭 터져 있는 크고 작은 공원들과 운동장, 골프장, 경마장 및 캠퍼스 등과 같은 수많은 공공시설들이 각각 개성있게 꾸며져 있어서 마치 푸르른 정원 안에 한 도시가 조성된 듯 싱그럽다.

인구비(比) 세계 최고의 컴퓨터 보급률을 성취한 호주지만, 자체상표를 붙인 컴퓨터는 단 한 세트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제조업을 포함한 2차산업이 그밖의 다른 산업에 비하여 특히 미미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캔버라(호주의 수도)의 시가 중심축에 자리잡은 국회의사당 옥상에서 연수단 일동이 기념촬영을 했다.

같은 취약한 산업구조에 대하여 오히려 당당하게 보였다. 호주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하던 BHP제철공장의 브리핑에서, 강조하며 끝마친 말은 환경을 포기하면서까지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근처에 있던 PPS화력발전소에서는 인근의 질 좋은 유연탄을 터널식으로 수송하여 완전 연소시킴으로써, 중앙통제소의 모니터로는 나오지도 않는 굴뚝의 연기만을 감시하고 있었다. 소형이지만 호주에서 하나 밖에 없다는 핵원자로가 있었던 ANSTO원자력연구소의 마지막 시찰코스에서의 자랑은 세계적으로 특허낸 완벽한 핵폐기물처리장치에 관한 장황한 설명이었다.

내륙 전원도시인 배서스트에 소재한 토지정보센터(LIC)는 주로 인공위성의 탐사를 활용하는 지리정보체계(GIS)를 응용하여, 전 국토에 걸친 자연환경과 도시의 복지시설에 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호주는 곳곳마다 쾌적한 삶을 추

구하는 인간중심의 사회적 배려와 행정적 지원이 탄탄하게 깔려있었다. 그러므로, 호주의 공간이 투명한 것은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이라해도 좋을 것 같았다. 금세기 최대 우주쇼라고 일컬어진 혜성의 목성 연속추돌장면을 찍은 GOO라는 아마추어 천문대의 사진은 당시 지상에서 얻었던 화상중 가장 깨끗한 것이었다고 그곳의 대원들이 뽐내었다. 그 컴퓨터화상은 NAS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매스컴에 제공되었다고 한다.

다녀보았던 곳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었는데 호주의 햇살은 밝고,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으며, 발닿는 곳은 거의 모두 깨끗했었다. 건조한 공기 탓인지 바닷가에서 비린내조차 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자연보호에 대한 뛰어난 시민의식이 한 몫하고 있음은 물론이겠다. 이런 곳에서 이 나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사숙녀로 성장하고, 여기에 걸맞는 예절이 몸에 밴다. 따라서, 이웃에게 어떤 형태로든 폐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세련된 세계인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렇다하여 호주가 계속해서 백인들의 낙원으로 남을지는 의문이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사회복지제도가 철저하고 생존에 위협주는 어떤 것도 없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어 보였다. 불이 나도 도망치는 동물적 본능마저 사라진 코알라처럼 시민들은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었다. 이들의 바람은 소박하나 지나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그러므로, 고난과 소망이 빠져버려도 여유만만한 그런 자연 및 환경 조건이 곧 낙원이라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았다. 바로 이곳에서 코알라가 멸종 즈음에서 겨우 희귀관상용으로 몇 마리 남았고, 또 애버리진 역시 외래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간신히 그 명맥만을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한·중·일의 황색문화 압도

시드니는 이제 세계의 공원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옥스포드거리는 동성 연애자들의 세계적인 순례지가 되어버렸고, 우리가 연수받았던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의 쉐스턴캠퍼스는 거의 절반 가량이 해외 유학생처럼 보였으며 각양각색의 인종전시장 같은 곳이었다.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고, 다시 세계적인 WWW(World-Wide Web) 망으로 연계되어 온 인류와 동시에 호흡하고 있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은 특 터져 있는 분위기와 잘 어울려져 환상적인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개방된 분위기에서 참다운 자유가 누려진다. 시민들은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두를 위한 질서를 잘 지킨다. 남녀노소없이 옆 사

람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며, 순수하다. 한결같이 법을 어기며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사람들 같다. 그런데 이렇게 튼튼하고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체험하면서도 백호주의의 호주가 머지않아 침몰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미 활기를 잃고 묵은 먼지를 덮어 쓴 빈 집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서구사회에 정신적 활력을 공급해 온 주일예배에, 주말을 즐기는 청장년층이 빠져나간 자리를 비워둔 채 노인들만 남아 맥빠진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음악당에 찾아온 손님 역시 청장년층이 썰물처럼 빠진 상태였다. 거의 자체의 밑천이 없는 이 지역의 백인문화는 아무런 자극도 없이 이미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는 듯하였다.

호주가 일본식민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호주에서의 일본세는 비싼 기술집약제품의 유통과 부동산 투자 등에서 실로 막강함을 깨닫게 한다. 일본어는 이곳에서 현실적으로 제일 외국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일본 관광객은 어디서나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중국인들은 호주 개척 초기부터 노무자로 들어와서 소위 3D 노역을 맡아준 건국공로자였다. 그들은 그사이 주요 도시마다 금싸라기 땅덩어리 위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하여 그들만의 단결된 상권을 확립하고 있었다. 호주에서 비교적 값싼 일상 소비제품은 거의 중국(대만 포함)제였다.

배서스트에서 만났던 어느 향토학자는 그들(백인)이 백호주의를 공식구호로 내세운 적이 한번도 없었던 유언비어라고 강변했지만, 사실은 그 백호주

의 배경에는 생존력이 탁월한 황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 백인들이 낙원에서 점점 코알라를 닮아가고 있을 때, 황인들은 조금씩 비집고 들어가 점점 실권을 차지할 수 있었으리라. 그리하여, 서서히 황색문화가 백색문화를 누르면서 한·중·일이 호주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호주의 상징색 초차 황색이 아니었던가. 그때가 되면, 대륙의 느려터짐도 아니고 섬쪽의 절박함도 아닌, 반도만이 얻을 수 있는 중용의 덕을 구사하는 한민족이 지혜롭게 양쪽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호주뿐 아니라 세계까지 주도할 날이 오리라. 마치 황영조가 마라톤에서 우승한 것처럼.

세계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

세계화란 쉽게 말해 어느 민족, 어느 이념과도 화해하며 누구나 서로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개방된 마음을 뜻한다. 세포가 모여 지체(肢體)가 되고, 지체가 어울려 한 몸이 되듯이 우리는 이제 뭉쳐서 한결같이 열린 마음을 가진 세계인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시드니를 우리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삼아, 이전의 일본과 중국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후세들을 세계인으로 훈련시키자. 자기 눈앞에 떨어진 잔전만 줍다가 세계버스를 놓쳐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는 미래의 역사에서 변창할 한민족의 위대한 꿈을 다함께 그려야 한다. ‘한국의 세계화란 결국 세계의 한국화’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반만년 역사의 피땀한 훈련으로 다져진 저력이 민족의 얼로써 승화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당신은 깨닫지

못하는가.

한국 땅은 너무 좁고, 인구는 너무 많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의 활동 범위를 전세계적으로 넓히면 되는 것이다.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한얼의 뿌리를 깊이 드리우고 자기 자신이 바로 한국의 전진기지가 되자. 이것이 한국의 세계화를 구축하는 길이고, 그 바탕이 튼튼할 때 세계의 한국화까지 이어질 것이다. 점점 세계는 국경, 이념,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의 지구촌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 않은가. 교통, 통신, 정보의 우주적인 발달은 신토불이의 ‘토(土)자가 말 그대로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천하자.

첫째, 영어회화 구사력이 영어교육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국민학교부터 일상회화를 가르치자. 그리고 중학교까지 영어과목은 모두 끝내자. 따라서, 대입시험에서 영어필기과목은 가능한 줄이고 그 대신 영어면접시험을 무겁게 치르게 하자.

둘째, 건전한 세계인으로 육성되게 하는 환경이 아동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 개방된 마음과 올바른 질서가 자리잡도록 어른부터 애써 노력하자. 원칙을 소중하게 준수하고, 계산없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예의를 지키자.

셋째, 대화와 토론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이 가정에서부터 명확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술 없이도 밤 깊도록 대화를 나누는 풍토를 일구자. 특히, 이웃집 부부가 함께 모여 이야기함으로써 공동사고에 의한 의견을 짜내는 사례를 생활화하자. **ST**